

한국어 ‘VN하다’로만 대응하는 일본어 ‘VNする’

- 기초적 어휘를 중심으로 -

金良宣*

< 要 旨 >

韓国語 ‘VN하다’에 だけ 対応 する 日本語 ‘VNする’

- 基礎的な 語彙 を 中心 に -

本稿では、日本語の漢字語の中で最も高い占有率を示している二字漢字語「VNする」を、国際交流基金(2002)の『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の中から1,242語を抽出し、日本語「VNする」が韓国語「VN-hada」にだけ対応するグループ(B-1グループ)を研究対象にした。そして、このグループの特徴を、「語構成上の側面」「統語論的側面」「意味論的側面」の3つの側面で分析した。次の三つの研究結果が他の場合(「VN-hada/doeda」に対応する場合、「VN-doeda」だけに对应する場合など)との比較際、適切な比較基準として役に立てばと思う。第一、二字漢字語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VNする」の語構成の特徴は、「客体関係」と「並立関係」が主であることがわかった。しかし、この結果は、残念ながら日本語の二字漢字語の特徴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ため、それほど弁別力があると思えない。

第二、統語論的側面では次の5つの特徴が分かった。①条件(～と)、条件(～ば)、可能(～できる) 》 疑問助詞(～か) 》 名詞修飾形・終止形・～ている形・中止形(+有生物) 》 条件(～たら) 》 逆接助詞(～が) 》 ～ながら(順接)の順に表われやすい。②～かもしくは 》 ～かあるいは 》 ～ようにしている 》 ～ようにする 》 ～うちに 》 ～かどうか 》 ～ながら(逆接) 》 ～てみる 》 命令形の順に表われにくい。③「自他両用」動詞はない。④すべての表現が可能なのは11語である(11/253=4%)。⑤有生物を動作主や主語にとりやすい(233/253=92%)。第三、意味論的側面では次の3つの特徴がわかった。①大体の動詞は意志動詞(92%)である。②約過半数(46%)が瞬間動詞である。③無意志動詞と意志動詞は命令形の可否により分けられるのではない。

主題語: VNする, VN-hada, 2字漢字語, 語構成, 対応

1. 서론

1.1 연구대상 및 목적

일본어의 가장 기초적이며 생산성이 매우 높은 어휘인 ‘する’의 다음의 예문(1)~(4)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연구는 미흡한 것 같다. 즉 이들은 한국어 학습자가 일본어로 작문을 할 경우 매우 혼란스럽고 틀리기 쉬운 경우이지만 그 구분을 명시해주는 선행연구는 찾기 힘든 실정이라 할 수 있겠다.

- (1) 契約が成立する。(K 3 :1381)
- a (○) 계약이 성립하다. (K-W)

* 영남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조교수, 일본어학

- b (○) 계약이 성립되다. (K-W)
- (2) 矛盾する。
- a (×) 모순하다 (K-W)
- b (○) 모순되다 (K-W)
- (3) a 外務省賓客として来日する。(J-W) (×)내일하다
- b ドンキ秋葉原店前は週末は混雑する。(J-W) (×)혼잡하다¹⁾
- c バックを握りしめるなど用心する。(J-W) (×)용심하다
- d すぐには本筋が見えてこなくても焦らず、気長に辛抱する。(J-W) (×)실포하다
- (4) (○) 故障する (J-W)
- (×) 고장하다 / (×) 고장되다²⁾

물론 일본어의 ‘VNする’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田野村忠温(1988), 影山太郎(1993), 平尾得子(1995), 小林英樹(1997), 松岡知津子(2004), 金英淑(2004) 등을, 한국어의 ‘VN하다/되다’의 연구로는 고재설(1999), 기타무라다다시(2004), 김동식(1984), 김창섭(1997), 박승윤(1984), 서정주(1975)(1991), 시정곤(1994), 윤만근(1982), 이남순(1993), 임홍빈(1998), 조미정(1987), 채희락(1996). 한정환(199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일대조연구로는 生越直樹(1982)(2001), 鷲尾龍一(1998)(2001), 安平鎬·張根壽(2001) 등을 들 수 있으며, 방대한 자료조사를 근거로 그 사용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양 언어 ‘する’와 ‘하다/되다’의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安平鎬·張根壽(2001)에서는 ‘1자 한자어+する’에 대한 세밀한 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그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학습자에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설명으로 이해되기는 다소 난해한 느낌이 든다. 또한 일본어 한자어 중 그 숫자가 가장 많은 ‘2자 한자어’, 그 중에서도 학습 시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어휘로 한정시킨 ‘2자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김양선(2006)에서 이미 일본어 한자어 중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자 한자어 ‘VNする’를 國際交流基金(2002)에서 출판한 『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에서 1,242자를 추출하여, 이들이 한국어에서는 어떻게 대응되는가를 크게 4분류했다³⁾. 즉 일본어 ‘VNする’가 한국어 ‘VN하다’ VN‘되다’ 양쪽 모두 대응되는 그룹(A그룹), ‘VN하다’로만 대응되는 그룹(B그룹), ‘VN되다’로만 대응되는 그룹(C그룹), 그 어느 쪽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그룹(D그룹), 이 4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의 특성 등을 가설로 제시하였다. 이는 일본어 ‘VNする’와 한국어 ‘VN하다/되다’와의 개괄적이며 윤곽적인 대응관계를 파악한 단계이다.

결국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이 4분류 중(B그룹) ‘VN하다’로만 대응되는 그룹의 특성에 대해서 어구성적(語構成的), 통어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심도 있게 분석하여 필자가 세운 가설

1) 결론적으로 설명하자면 b의‘混雑’은 본 연구에 의하면 D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한국어 ‘VN’이 될 수 없는 어휘이다. 형용사의 경우는 예문처럼 문말로 사용되는 경우는 직역해도 그 의미가 통하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혼잡하는 날)는 다른 동사((○)식사하는 날)와 달리 “는” 현재관용어미”를 선택할 수 없다(한정환(1993:220-223), 조미정(1987:194-195) 참조). 따라서 ‘混雑’은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이지만 VN이 아니다.

2) 한국어에 ‘故障하다/되다’는 존재하지 않고, ‘故障내다/나다’는 사용되고 있다.

3) 『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에 기재된 명사 중 ‘する’가 붙을 수 있는 단어를 ‘VNする’로 보고, 일본어 모어화자의 native check에 의거하여 추출하였다. 즉 현재 일본인이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일본어를 근거로 ‘VNする’을 추출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을 입증하고 보완하고자 한다. 단 본고에서는 사전류 및 한국어모어화자의 판단과 웹사이트 검색 결과에 의거하여 순수하게 B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만을 구분하여 편의상 'B-1그룹'이라 명하여 이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는 사전류에 의거하면 B그룹으로 분류되지만, 한국어모어화자의 판단과 웹사이트 검색 결과에 의하면 A그룹의 특성을 띠게 되는 경우(가칭 'B-2그룹')와 구분하고자 한다. 이들 'B-2그룹'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본고에서는 'B-1그룹'만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결국 본고는 일본어 학습시 기초가 되는 어휘에 있어서의 일본어 'VNする'와 한국어 'VN하다/되다'의 대응관계를 명시하고자 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단계라 할 수 있겠다. 본고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VNする'가 한국어 'VN하다' VN'되다' 양쪽 모두 대응되는 그룹(A그룹), 사전류에서만 'VN하다'로만 대응되는 그룹(B-2그룹), 'VN되다'로만 대응되는 그룹(C그룹), 그 어느 쪽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그룹(D그룹), 이 4그룹의 특성을 상호 비교 분석할 경우를 위한 기초연구인 것이다. 이와 같은 궁극적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우선 순수한 B그룹의 특성을 띤 'B-1그룹'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다각적인 측면 즉 2자한자어의 구성적 측면, 통어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2 연구 방법

본고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3단계의 연구방법을 택하고자 한다.

1) 김양선(2006)에서 분류한 4분류에 근거하여 한국어 'VN하다'로만 대응되는 B그룹 중 'VN하다'로만 대응하는 용례인 259語(B-1그룹)만을 수집한다. 단 한국의 국어사전에 는 게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찾을 수 없었던 4語('參上하다' '選考하다' '用意하다' '平方하다')와, 일본어와 한국어와 각각 그 의미가 다른 2語 ('工夫하다' '用心하다')는 제외시키고, 실제 한국에서 사용되면서 'VN하다'로 대응될 수 있는 일본어 'VNする'인 253語만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握手	意味	隱居	引退	運動	營業	演技	往診	応接	介護
會合	外出	概論	會談	概論	會話	歡迎	看護	觀光	感謝
感心	乾杯	看病	歸鄉	棄權	起床	帰宅	起伏	希望	休學
休憩	求婚	給食	休息	休養	寄与	禁煙	勤務	勤勞	空想
苦心	工夫	經驗	警告	警備	下車	下宿	化粧	決意	結婚
決算	決心	欠席	決斷	原因	見學	兼業	研修	儉約	講演
航海	抗議	貢獻	交際	行進	抗爭	後退	告白	再會	在學
裁縫	作文	雜談	參上	散步	自衛	司會	嗜好	自殺	支持
自首	自習	辭退	実感	失敗	失望	質問	失戀	自轉	死亡
志望	自慢	寫生	借金	私有	集金	修學	就業	襲撃	從事

<표1 : B-1그룹 순수한 'VN하다' 리스트 (253語중 일부)>

2) B-1그룹에 속하는 253개의 용례는 <http://dictionary.goo.ne.jp/web> 에서 검색하되, 다음과 (5)과 같이 각 용례를 20개의 다양한 형태—a 명사수식형, b 종지형, c ~ている, d 중지형, e なから(①순접/②역접), f ~가(접속조사), g①~と/②~ば/③~たら(조건), h ~するうちに, i ~てみる, j ~できる(가능), k①~ようにしている/②~ようにする, l ~しろ(명령), m ~か(의문조사), n

~かどうか, o①~かあるいは/②~かもしくは一로 수집한다. 단 a~d의 경우는 유정물과의 共起可否를 기준으로 수집한다.

(5) 握手する:

- a. ファンと握手するイ・ヒヨリ. 歌手イ・ヒヨリ
- b. 堂々と目を見て握手する。
- c. 歌手イ・ヒヨリが25日午後、ソウル蚕室の教保文庫で行われたファンサイン会でファンと握手している。
(朝鮮日報 Chosunilbo (Japanese Edition) 記事入力: 2006/02/26 13:21)
- d. 金正日同志は金大中大統領と握手し、あいさつを交わした。
- e. ① 参加された皆さんが、笑顔で握手しながら決意を新たにしていた。
② ソニーと松下は片手で握手しながらももう一方の手で殴り合ってるという認識でいいですか
- f. 女子は、女子同士のとき、いくばく、握手するが、男子とは、握手せず、会釈するのみ。
- g. ① 菅氏が、遅れて到着した小沢氏に歩み寄り握手すると、鳩山氏や渡部恒三国防委員長が間に入り、ビールで乾杯。(livedoor ニュース 2006年04月04日20時04分)
② 16人が1つの大きな円形テーブルに座っている場合は、13人と握手すれば十分だ。
③ 病院で心筋梗塞の人と握手したら、元気になった。
- h. ヒューマン・ソウル・キャッチャーとは握手するうちに相手が悪人であっても一時的に魂を置き換えることができる。ヒューマンの跳躍力は、ノンステップで東京タワーをひと飛びできる。
- i. 握手してみると手の皮が分厚のに驚かされる。
- j. SIMOに勝つと、記念にASIMOと握手できる。
- k. ① 私は別れる時はなるべく握手するようにしています。
② 左の上の手と右の下の手でも可能だが、片方は身体の前で、もう片方は後ろで握手するようにすると、いい柔軟体操になるのではなからうか。
- l. 撮り終わった瞬間に握手しろと言われる。
- m. 金正日とクリントンは握手するか。
- n. 今回のエビアン・サミットでドイツのテレビの最大関心事はブッシュ大統領とシュレーダー独首相が握手するかどうかであった。
- o. [握手するかあるいは] の検索結果です。 (0件中0件を表示)
[握手するかもしくは] の検索結果です。 (0件中0件を表示)

3) 각 용례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B-1그룹의 통어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양선(2006)에서 제시한 B-1그룹의 특성을 검증, 보완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크게 3가지 측면 즉 'VN'자체의 어(語)구성적 측면에 대한 분석, 'VNする'의 통어론적 분석, 'VNする'가 동사로서의 특성에 대한 의미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상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이론을 재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금후 일본어 학습시 필요한 기초적인 어휘에 있어서 한국어 '하다/되다'에 대응하는 일본어 'VNする'의 A 그룹과 B-2그룹 등과의 비교분석시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B-1의 어(語)구성적 특성

2.1 어(語)구성이란

한국어 한자어의 구성에 대한 연구, 특히 2자 한자어 중 'VN'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어구성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우선 서정주(1975)를 들 수 있겠다. 서정주(1975:22)에서는 다음의 7가지 - ①[동작+동작] ②[동작+목적] ③[동작+목표(goal)] ④[한정요소+동작] ⑤[동작+한정요소] ⑥[주체+동작] ⑦[동작+명사화요소] or [명사화요소+동작]-로 그 특성상 분류하였다. 이는 'VN'이 갖고 있는 의미적 특성인 '동작'의 요소가 반드시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주기도 하였다.

일본어의 경우는 野村雅昭 (1988)가 광의의 2자 한자어를 대상으로 폭넓게 분석하였다. 野村雅昭 (1988:50-51)에서는 다음 9가지 - ①[補足:격관계] ②[修飾1] ③[修飾2] ④[並列] ⑤[対立] ⑥[重複] ⑦[補助: 접사첨가] ⑧[省略] ⑨[音借]-로 그 특성상의 분류를 시도 하였다. 단, 유사한 그룹인 ②[修飾1] ③[修飾2]과 ④[並列] ⑤[対立] ⑥[重複]을 하나로 묶어서 크게 분류하고 다시 하위분류하는 편이 전반적으로 보다 간결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어를 연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山田孝雄의 3분류와 松下大三郎의 5분류를 참조하여 보다 간결하게 한자어구성의 특성을 제시한 齋賀秀夫(1997)을 참조하여 2자한자어구성의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齋賀秀夫(1997 : 37-43)에서는 ①병립관계 ②주술관계 ③補足관계(일본제 한어) ④수식관계 ⑤보조관계 ⑥객체관계의 6가지로 한자어의 구조적 특성을 구분하였다.

2.2 B-1의 VN의 어(語)구성

본고에서는 齋賀秀夫(1997 : 37-43)를 참고하여 B-1의 어구성(語構成) 특성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표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B-1	語구성
1	握手	객체(を)
2	位置	병립(동의어·유의어)
3	意味	병립(동의어·유의어)
4	隱居	객체(を)
5	引退	병립(동의어·유의어)
6	運動	병립(동의어·유의어)
7	応援	병립(동의어·유의어)
8	往診	객체(に)
9	応接	병립(동의어·유의어)

<표2: B-1의 語구성(253語중 일부)>

즉, 조사결과 B-1은 주로 객체(を、に、から)관계와 병립("동의어·유의어에 의한 一義形成")관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출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병립관계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수가 많은 것은, 齋賀秀夫(1997:42-43)에 “中国語における造語法の大きな特徴”이며, “国民一般の漢字に対する知識の退化とも相まって、今後は二字の漢語を単純語として意識する傾向がますます強くなるものと考えられる” 라고 언급되어 있듯이, 이 결과만을 가지고 B-1만의 특성이라고 결론짓기도 어려울 것 같다.

3. B-1의 동사로서의 통어론적 특성

3.1 동사의 통어론적 분류

우선 동사의 분류는 수동태의 可否를 근거로 하여 所動詞와 能動詞를 구분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한 三上章(1953, 1972復刊:105)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三上章의 동사분류를 바탕으로 郡司隆男(2004:111)와 影山太郎(1993:47)에서는 보다 정밀하게 타동사와 자동사의 구분을 (6)와 같이 시도하였다.

(6) a. 郡司隆男 (2004:111) 의 분류:

他動詞(주어와 목적어 있다)

非能格自動詞(동작주가 주어가 된다)

非対格自動詞(대상이 주어가 된다)

b. 影山太郎 (1993:47) 의 분류:

他動詞：(動作主Agent <対象Theme>)

非能格自動詞：(Agent < >)

非対格自動詞：(<Th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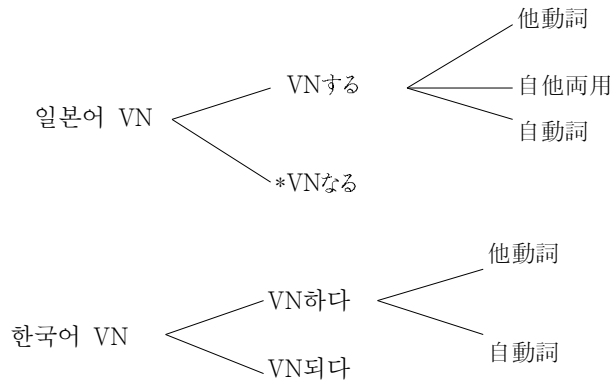
특히 影山太郎(1996:140, 202-204)에서는, ‘サ変動詞’는 영어와 유사하게 분류되는 특성이 있다며, ‘自動詞のみ’ ‘他動詞のみ’ ‘自他兩用’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影山太郎(1996)에 의거하여 일본어의 ‘サ変動詞’처럼 한국어 ‘하다’ 동사도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한다. 다음의 (7)는 影山太郎(1996:202)에 제시된 「自他兩用」에 해당되는 단어들이다. 이들을 중 본고의 연구대상의 근원이 되는 1,242자에 해당되는 것만을 선별하여, 다음 (8)과 같이 한국어 ‘하다’와 ‘되다’로 대응시켜 보았다.

(7) 拡大する, 縮小する, 変形する, 完備する, 完成する, 正常化する, 回転する, 開展する, 解散する, 現実する, 解消する, 具体化する

(8) 확대하다/되다(A그룹), 축소하다/되다(A그룹), 완성하다/되다(A그룹), 회전하다(B-2그룹)⁴⁾, 전개하다/되다(A그룹), 해산하다/되다(A그룹), 실현하다/되다(A그룹).

그 결과 우선 일본어의 ‘サ変動詞’에 대응하는 한국어의 ‘VN하다’의 경우는 일본어와 달리 ‘自動詞のみ’ ‘他動詞のみ’의 2가지로만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한국어 ‘VN하다’는 ‘自他兩用’으로 표현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한국어에는 일본어와 달리(「*VNなる」) ‘VN되다’가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표3>과 같이 김양선(2006:73)을 보완하고자 한다.

4) 사전류에 의거하면 ‘회전하다’로만 제시되어 있어서 B-1그룹에 해당되지만, 한국어모어화자와 웹사이트 검색결과 ‘회전되다’의 용례도 발견되기 때문에 B-2그룹으로 분류하였다.



<표3: 일본어 'する'와 한국어의 '하다'의 동사적 특성비교>

3.2 B-1의 통어론적 특성

본고에서는 B-1그룹 즉 오직 한국어 '하다'만으로 대응되는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여 위의 (5)과 같은 식으로 B-1그룹의 253개를 20가지 문형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음 <표4>와 같이 구체적인 표현문형상의 특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B-1	a	b	c	d	e-1	e-2	f	g-1	g-2	g-3	h	i	j	k-1	k-2	l	m	n	o-1	o-2	
1	握手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No	No	
2	位置	Y	Y	Y	Y	No	Y	Y	Y	Y	Y	No	Y	Y	Y	Y	Y	Y	Y	No	No	
3	意味	No	No	No	No	No	Y	Y	Y	Y	Y	No	No	Y	Y	Y	No	Y	Y	No	No	
4	隱居	Y	Y	Y	Y	No	Y	Y	Y	Y	Y	No	Y	Y	No	No	Y	Y	No	No	No	
5	引退	Y	Y	Y	Y	No	Y	Y	Y	Y	Y	No	Y	Y	No	No	Y	Y	Y	Y	Y	
6	運動	Y	Y	Y	Y	Y	No	Y	Y	Y	Y	Y	Y	Y	Y	Y	Y	Y	Y	No	Y	
7	応援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Y	No
8	往診	Y	Y	Y	Y	Y	No	Y	Y	Y	Y	Y	Y	Y	No	No	Y	Y	Y	No	No	

<표4: B-1의 통어론적 특성(253語중 일부)>

이를 근거로 B-1이 표현이 불가능한 경우의 수치를 표시함으로써 B-1그룹이 표현되기 쉬운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쉽게 알 수 있게 만들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5>가 된다.

B-1 (253)	a	b	c	d	e-1	e-2	f	g-1	g-2	g-3	h	i	j	k-1	k-2	l	m	n	o-1	o-2
불가	0	0	0	0	14	42	13	3	3	10	117	33	3	145	139	23	4	60	176	201
-인칭	9	9	9	9																

<표5: B-1의 표현불가 수치>

위의 <표4><표5>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B-1의 통어론적 특성은 다음의 (9)와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9) B-1의 통어론적 특성:

- ① '自他兩用'동사가 없다.
- ② g-1, g-2, j > m > a~d (-무생물) > f > e-1 의 순으로 표현되기 쉽다.

③ o-2 > o-1 > k-1 > k-2 > h > n > e-2 > i > l 의 순으로 표현되기 어렵다.

④ a~o 의 모든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11語(11/253=4%).

失敗する, 成功する, 成長する, 相談する, 存在する, 滞在する, 対処する, 注意する, 挑戦する, 通学する, 電話する.

⑤ 주로 유생물을 주어로 취하지 쉽다.(244/253=96%)

즉, 意味する, 概説する, 起伏する, 自転する, 上下する, 発電する, 反響する, 比例する, 野生する(총 9개)만이 주어로 유생물을 취하지 않는다.

(9)에서 제시된 B-1의 통어론적 특성은 2장에서 제시한 어구성의 특성에 의거하여 살펴본 경우보다는 타 표현과의 비교시 비교적 변별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B-1의 동사로서의 의미론적 특성

4.1 동사의 의미론적 분류

동사를 그 의미에 의거하여 格을 근거로 분류한 言語学会(編)(1983)를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처럼 「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에 의한 분류는, 예를 들면 “感情的な態度をしめしている動詞”에 해당되는 다음 (10)의 ‘感謝する’가 “を格のかたちをとる名詞と動詞とのくみあわせ”에도 “に格の名詞と動詞のくみあわせ”에도 해당되게 된다. 이런 경우가 言語学会(編)(1983)에서 종종 발생된다.⁵⁾

(10) 感謝する :

トム・ダウドに出会えた事を感謝する。先日とりあげた映画トム・ダウド/いとしのレイラをミックスした男をやっと観に行くことが出来た。

Mike Haertel にコンピュータを使うことを許可してくれた Minnesota 大学のコンピュータ・サイエンス学科に感謝する。

결국 본고에서는 의지성과 자기제어성을 기준으로 동사를 분류한 다음 (11)의 仁田義雄(2002:152)의 동사분류에 입각하여 일반적으로 동사가 갖는 의미적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11) 仁田義雄(2002)의 동사분류:

動詞—①意志動詞—達成の自己制御性の動詞 : 走る (A)

過程の自己制御性の動詞—落ち着く(B): 자연스런 긍정명령형 동사

悩む(C): 자연스런 부정명령형으로 심적활

동 및 실패행위 표현 동사

②無意志動詞 : 死去する(D)

그 결과, 전술한 (10)과 다음의 (12)에서 알 수 있듯이, 「を」 격의 가부가 자동사와 타동사

5) 이는 鈴木重幸・鈴木康之(1983)가 형태론적 입장에 의거하여 수집한 자료집이라는 점이 一因이라 판단되지만 다양한 동사가 그 의미별로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참조한 것이다.

의 분류기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다음의 (13)~(15)에서와 같이, 타동사는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자동사는 의지와 무의지를 모두 나타낼 수 있는 동사라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12) 意味する: 자동사

このことは小選挙区比例代表並立制の導入後3度目にして、選挙制度の持つ特徴が明確になったことを意味する。

(13) 観光する: 타동사, 의지동사

b. レンガ造りの平屋が建ち並ぶ胡同と呼ばれる迷路のような路地を観光する。700年前の路地に建つ庶民の住居を見ることができる。

i. 金曜日に仕事を終えて、3連休ということなのでちょっと韓国を観光してみる。考えればこの2年で7~8回は行ったが、いわゆるカンナンというエリアから出たことがない。

l. それと距離を稼ぐ事よりのんびり観光しろ。走るだけがソーリングじゃ無いぞ。

(14) 握手する: 자동사, 의지동사

b. 堂々と目を見て握手する。

i. 握手してみると手の皮が分厚のに驚かされる。

l. 撮り終わった瞬間に握手しろと言われる。

(15) 起伏する: 자동사, 무의지동사

b. 1339年(延元4年/暦応2年)に後醍醐が死去すると親房が南朝の指導的人物となるが、親房が1354年(正平9年/文和3年)に死去すると南朝はまた衰微し、幕府内での抗争で失脚した細川清氏が楠木正儀らと南朝に帰順して一時は京都を占拠するものの1367年(正平22年/貞治6年)に敗れ、以降は大規模な南朝の攻勢もなくなり、足利義詮時代には大内弘世や山名時氏なども起伏する。

i. [起伏してみる] の検索結果です。(0件中0件を表示)

[起伏してみると] の検索結果です。(0件中0件を表示)

[起伏してみるものの] の検索結果です。(0件中0件を表示)

l. [起伏しろ] の検索結果です。(0件中0件を表示)

4.2 B-1의 의미론적 특성

전술한 仁田義雄(2002)을 참고로 B-1을 분류할 경우, 특히 仁田義雄(2002)의 (B)(C)의 구분은 본고의 항목 1로, (A)(D)는 항목 i로 그 판별이 가능하다. 그 결과, 1항목의 용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16)과 같이 23語가 있으며, 이를 仁田義雄(2002)의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해본다면 다음 (17)과 같다.

(16) 명령형(긍정)의 용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23語)

意味する, 起伏する, 給食する, 苦心する, 原因する, 嗜好する, 自転する, 私有する, 吹奏する, 専修する, 洗面する, 相違する, 送別する, 待望する, 抽象する, 念願する, 微笑する, 評判する, 負傷する, 牧畜する, 野生する, 領収する, 冷蔵する

(17) ① (A)그룹: 給食する, 私有する, 吹奏する, 洗面する, 送別する, 微笑する, 牧畜する, 領収する, 冷蔵する

② (B)그룹: 嗜好する, 待望する, 抽象する, 念願する

③ (C)그룹: 苦心する

④ (D)그룹: 意味する, 起伏する, 原因する, 自転する, 相違する, 評判する, 負傷する, 野生する

(17③)의 (C)그룹은 仁田義雄(2002)에서 지적한대로 긍정명령표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18)와 같이 (17②)의 (B)그룹에 속하는 4語에 명령표현이 불가능하고, 또 (18)와 같이 의미상으로는 (C)그룹에 속하면서도 긍정명령문의 용례가 존재하는 ‘失敗する’, ‘借金する’, ‘敗北する’, ‘悲觀する’ 등이 문제이다.

- (18) ① [嗜好しろ] の検索結果です。 (0件中0件を表示)
 ② [待望しろ] の検索結果です。 (0件中0件を表示)
 ③ [抽象しろ] の検索結果です。 (0件中0件を表示)
 ④ [念願しろ] の検索結果です。 (0件中0件を表示)
- (19) ① 失敗と成功の関係は、オセロと同じである」(祐樹語録)ここをつかめば、英会話だろうかんだらうが ちよろいものなのです。 ボクは、当会の新人くんにもよく言ってます。「キミにボクは、巨大な成果を期待している。 だから、1ヶ月で30個は失敗しろ。
 ② 減税補てん債なども、国の減税政策による地方の歳入減を、後から交付税措置で面倒をみてやるから借金しろといわれてやむなく従った。
 ③ その上で私に敗北しろ。
 ④ そのレベルの低さを悲觀しろよ。

물론 (19)의 경우를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18)의 경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결국 과연 (C)와 (D)를 구분할 필요성이 있는가, 즉 (C)의 “過程の自己制御性”이 (B)에 비하여 과연 어느 정도 인정될 만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B)그룹과 (C)그룹을 구분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기제어성을 “達成の自己制御性”과 “過程の自己制御性”으로 굳이 2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達成の自己制御性”의 有無만으로도 충분히 동사의 의미가 구분될 수 있는 것 같다. 따라서 (C)그룹을 제외시키고 의지의 有無와 “達成の自己制御性”의 有無로 다음 (20)과 같은 B-1의 분류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20) B-1의 의미론적 분류:

- 動詞—①意志動詞—達成의 自己制御性 有 : 給食する(A)-타동사
 達成의 自己制御性 無 : 嗜好する, 苦心する(B)-자동사
 ②無意志動詞 : 意味する(C)-자동사

이처럼 긍정명령문과 부정명령문의 有無와 “課程の自己制御性”의 有無를 동사를 분류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 또 한 가지 아울러 무의지동사가 반드시 명령의 문형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본 조사에 의하면, B-1의 무의지동사는 다음 (21)과 같이 20語이지만 그 중 (22)과 같이 명령형으로 사용되는 12語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⁷⁾, 반면에 의지적인 동사인 (17①)의 (A)그룹 9語도 그 명령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⁸⁾

6) 加藤重広 (2001:113) 에서 단순히 자신의 의지로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에 「しろ」를 택하여 형용사의 명령형을 만든다고 설명한 내용도 본고의 결과와는 모순적이다.

7) 물론 독특한 조건의 하에서 사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당수가 명령표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2/20=60%).

8) 본고의 결과와 일본어 모어화자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한다.

(21) B-1의 무의지동사(20語):

意味する, 起伏する, 感心する 原因する, 実感する, 失恋する, 自転する, 死亡する, 相違する, 遅刻する, 直通する, 痛感する, 敗北する, 発電する, 評判する, 疲労する, 負傷する, 野生する 및 자동사인 경우인 反響する과 比例する. 총20개

- (22) ① ゴールを決めるってすごいことなんだぞ、もうちよい感心しろ。
 ② 実感しろよ。空腹こそ最高のスパイスだ。
 ③ 失恋できないのならばアルバムが出せないのなら、どんどん失恋しろと、思いながら、痛みを発散するために聞いてた。
 ④ アメリカ人だけ全員死亡しろ。
 ⑤ 慌てて入社する位なら遅刻しろ。(편의상재계재)
 ⑥ 秩父からの電車と下仁田からの電車を新快速につなげて直通しろ。
 ⑦ 自分がいかにいい加減に生きてきたかを痛感しろ。
 ⑧ その上で私に敗北しろ。(편의상재계재)
 ⑨ 自分で使う分はこげー自分で発電しろ。
 ⑩ 反響しろ。
 ⑪ 総務大臣は今後の交付税は人口で比例しろという話をしている。
 ⑫ みんな疲労しろ。日本代表では必死でがんばれ。

이상과 같이 B-1의 의미론적 특성을 검토해 본 결과를 다음의 (23)와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23) B-1의 의미론적 특성:

- ① B-1은 순간동사도 상당수 존재한다(117/253=46.2%).
 ② B-1은 대다수가 의지동사이다. (233/253=92.5%)
 무의지동사: 意味する, 起伏する, 感心する 原因する, 実感する, 失恋する, 自転する, 死亡する, 相違する, 遅刻する, 直通する, 痛感する, 敗北する, 発電する, 評判する, 疲労する, 負傷する, 野生する 및 자동사인 경우인 反響する과 比例する. 총20개
 ③ 무의지동사와 의지동사의 구분으로 명령표현의可否를 결정할 수 없다. 즉 의지동사도 명령표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무의지 동사도 명령표현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금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インターネット		일본어 모어화자(私見)	
	しろ	てください	しろ	てください
給食する	×	○	?	△
私有する	×	×	×	?
吹奏する	×	○	△	○
洗面する	×	○	×	△
送別する	×	○	×	×
微笑する	×	○	×	×
牧畜する	×	×	?	△
領収する	×	○	?	△
冷蔵する	×	○	?	○

5. 결론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한국어 ‘VN하다’로만 대응되는 B그룹(450) 중 사전에서는 ‘VN하다’로만 대응되는 259語의 ‘VNする’, 특히 한국의 국어사전에는 게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용례를 찾을 수 없었던 4語(‘参上하다’ ‘選考하다’ ‘用意하다’ ‘平方하다’)와, 일본어와 한국어와 각각 그 의미가 다른 2語(‘工夫하다’ ‘用心하다’)를 제외한 253語의 ‘VNする’(B-1 그룹)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크게 語구성상의 측면과 통어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 2자 한자어로 구성된 ‘VNする’(～てみる 그룹)의 語구성의 특성은 객체관계와 병립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일본어의 2자 한자어의 특성이기 때문에 타표현과의 비교시에는 그리 변별력이 있는 결과는 아니다.

둘째, 통어론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5가지 특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이는 타표현과의 비교시 비교적 변별력이 있으리라 기대된다.

- ① ‘自他兩用’동사가 없다.
- ② 조건(～と), 조건(～ば), 가능(～できる) 》 의문조사(～か) 》 명사수식형, 중지형, ている, 중지형(+유생물) 》 ～たら(조건) 》 역접조사(～が) 》 ～ながら(순접)의 순으로 표현되기 쉽다.
- ③ ～かもしくは 》 ～かあるいは 》 ～ようにしている 》 ～ようにする 》 ～うちに 》 ～かどうか 》 ～ながら(역접) 》 ～てみる, 》 명령형(～ろ)의 순으로 표현되기 어렵다.
- ④ 모든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11語(11/253=4%).
失敗する, 成功する, 成長する, 相談する, 存在する, 滞在する, 対処する, 注意する, 挑戦する, 通学する, 電話する.
- ⑤ 주로 유생물을 주어로 취하기 쉽다.(244/253=96%)
즉, 意味する, 概説する, 起伏する, 自転する, 上下する, 発電する, 反響する, 比例する, 野生する(총 9개)만이 주어로 유생물을 취하지 않는다.
- ⑥ 대다수가 의지동사로(233/253=92%), 意味する, 感心する, 起伏する, 原因する, 実感する, 失恋する, 自転する, 死亡する, 相違する, 遅刻する, 直通する, 痛感する, 敗北する, 発電する, 反響する, 評判する, 比例する, 疲労する, 負傷する, 野生する(총 20개)만이 무의지동사이다.

셋째,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2가지 특성을 추출할 수 있었다.

- ① B-2의 대다수가 의지동사이다(92.5%).
- ② 순간동사도 상당수 존재한다(46.2%).
- ③ 의지동사인가 무의지동사는 명령형의 가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없다. 타동사이면서 의지동사인 다음과 같은 동사의 경우 명령형 용례를 찾을 수 없다. : 給食する, 私有する, 吹奏する, 洗面する, 送別する, 微笑する, 牧畜する, 領収する, 冷蔵する.

이상과 같은 결과는 금후 기초어휘에서의 ‘VNする’의 다른 그룹인 B-2는 물론이며, A그룹과의 비교시 적절한 비교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用例出典】

國際交流基金(2002), 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

www.korean.go.kr 표준국어대사전 (K-W)

http://dictionary.goo.ne.jp/web (J-W)

【参考文献】

- 고개설(1999) 「동사 ‘하-’와 형용사 ‘하-’」, 국어학33
- 기타무라다다시(北村唯司) (2004), 한국어피동표현연구, J&C
- 김동식(1984) 「동사 ‘되다’의 연구」, 국어국문학 92
- 김양선(2006) 「日本語 ‘VNする’와 韓国語 ‘VN하다’의 대조- 일본어능력시험출제기준(개정판)을 중심으로-」, 日本文化研究19
- 김창섭(1997) 「‘하다’ 동사 형성의 몇 문제」, 『관악어문연구』 22
- 서정주(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 _____ (1991) 「“하-”와 “되-”에 대하여」,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 시정곤(1994) 「X를 하다와 X하다의 상관성」, 『국어학』 24
- 이남순(1993) 「‘하-’의 범주 중립적 특성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이상복(1975) 「‘하다’ 동사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6, 연세대학교
- 이익섭(1968) 「한자어 조어법의 유형」,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임홍빈(1998)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 조미정(1987) 「우리말 형용사의 특징과 문법동사 ‘-하-’의 관계」, 『국어국문학』 97
- 채희락(1996) 「“하-”의 특성과 경술어 구문」, 『어학연구』 32-3, 서울대학교
- 한정환(1993) 「‘하-’의 조용적 특성과 통사정보」, 『국어학』 23
- 安平鎬·張根寿(2001) 「一字漢語+スル」と「一字漢語+하다(hada)」, 『筑波大学「東西言語文化の類型論」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 研究成果報告書Ⅳ別冊 平成12年度「하다」と「する」の言語学, アレス
- 井上優·生越直樹·木村英樹(2002), 「テンス・アスペクトの比較対照 日本語・朝鮮語・中国語」, 『対照言語学』所収, 生越直樹(編), 東京大学出版会
- 生越直樹(1982) 「日本語語漢語動詞における能動と受動-朝鮮語hata動詞との対照-」, 『日本語教育』 48
- _____ (2001) 「現代朝鮮語の하다動詞における하다形と되다形」, 『筑波大学「東西言語文化の類型論」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 研究成果報告書Ⅳ別冊 平成12年度「하다」と「する」の言語学, アレス
- 影山太郎(1993) 『文法と語形成』, ひつじ書房
- 金英淑(2004) 「VNする」의 自他交替と再帰性」, 『日本語文法』 4-2, 日本語文法学会
- 言語学研究会(編)(1983) 『日本語文法連語論(資料集)』, むぎ書房
- 小林英樹(1997) 「自他両用法をもつ二字漢語動名詞の意味体系における分布」, 『計量国語学』 21-3
- 田野村忠温(1988) 「『部屋を掃除する』と『部屋の掃除をする』」, 『日本語学』 7-11
- 須賀一好·早津恵美子(編)(1995), 『日本語研究資料集第一期第8巻 動詞の自他』, ひつじ書房
- 野間秀樹(1997) 「朝鮮語の文の構造について」, 『日本語と外国語との対照研究Ⅳ 下』, くろしお出版
- 野村雅昭(1988) 「二字漢語の構造」, 『日本語学』 7-5
- 平尾得子(1995) 「VNがスルとVNスルとVNヲスル-サ変動詞と構文的制約-」, 『日本語類義表現の文法上』 所収, 宮島達夫·仁田義雄(編), くろしお出版
- 松岡知津子 (2004), 「複合動詞「~スル」を形成する漢語名詞について」, 『日本語教育』 120
- 松本隆 (2000), 「『教わる/教える』などの他動詞/二重他動詞ペアの意味的性質」, 『日本語意味と文法の風景』所収, 山田進·菊地康人·山洋介(編), ひつじ書房
- 鷲尾龍一(1998), 「韓国語漢語動詞における動詞選択の問題-『対応하다』, 『対応되다』の場合」, 『先端的言語理論の構築とその多角的な実証 (2・A) COE形成基礎研究費報告書』
- _____ (2001), 「하다·되다を日本語から見る」, 『筑波大学「東西言語文化の類型論」特別プロジェクト研究 研究成果報告書Ⅳ別冊 平成12年度「하다」と「する」の言語学』, アレス

< 요 지 >

한국어 'VN하다'로만 대응하는 일본어 'VNする'

- 기초적 어휘를 중심으로 -

본고에서는 일본어의 한자어 중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2자한자어 「VNする」를, 國際交流基金(2002)의 『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 중에서 1,242語를 추출하여, 日本語 'VNする'가 한국어 'VN-hada'만으로 대응하는 그룹(B-1グループ)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로 이 그룹의 특징을 '어구성(語構成) 측면' '통어론적 측면' '의미론적 측면'의 3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다음의 3가지 연구결과가 다른 경우((「VN하다/되다」로 대응하는 경우나 'VN되다'만으로 대응하는 경우 등)와의 비교시, 적절한 비교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2자한자어로 구성된 'VNする'의 어구성(語構成)의 특징은, '객체관계'와 '병립관계'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알았다(이 결과는 안타깝게도 일본어의 2자 한자어의 일반적인 특성이라하기 때문에 그리 변별력인 있는 결과라고 할 수는 없었다).

둘째, 통어론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5가지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이 결과는 다소 변별력이 기대된다). ①조건(~と), 조건(~は), 가능(~できる) > 의문조사(~か) > 명사수식형·중지형·~ている형·중지형(+유생물) > 조건(~なら) > 역접조사(~が) ~ながら(순접)의 순으로 표현되기 쉽다. ② ~か~は > ~かあるいは > ~よ~に~ている > ~よ~にする > ~うちに > ~かどうか > ~ながら(역접) > ~てみる > 명령형의 순으로 표현되기 어렵다. ③ 「自他兩用」동사는 없다. ④본 조사의 모든 표현이 가능한 경우는 11語이다(11/253=4%: 失敗する, 成功する, 成長する, 相談する, 自転する, 滞在する, 対処する, 注意する, 挑戦する, 通学する, 電話する). ⑤유생물을 동작주나 주어로 취하기 쉽다(233/253=92%).

셋째,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다음의 3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변별력이 기대된다).①이 그룹의 대부분의 동사는 의지동사이다(92%). ②약과반수(46%)가 순간동사이다. ③무의지동사와 의지동사는 명령형의 가부(可否)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김양선(金良宣)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일어일문학과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053-810-3161
kimysun@yumail.ac.kr

- 투 고 일: 2006년 11월 30일
- 심사개시: 2006년 12월 6일
- 심사완료: 2007년 2월 10일